



“4대강 사업 중단하라”

조계종 중앙종회 성명 발표... ‘냉정한 심판 따를 것’

불교 등 종교계의 4대강 반대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가 정부의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5월 17일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제9차 연석회의를 열고 ‘4대강 생명살림을 위한 성명서’를 결의·발표했다.

성명서 채택은 중앙종회가 계류 중인 ‘4대강사업 중단에 대한 결의문’ 안건이 종단 일정상 가까운 시일 내에 중앙종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을 고려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중앙종회 의장단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의 4대강은 국토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대동맥이고 대정맥이다. 4대강에서 지금과 같은 공사가 계속된다면 아름다웠던 산하는 제 빛을 잃고, 수질은 급전직하로 떨어지며, 생태계 전반은 훼손되고 교란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중단과 사부대중은 생명살림과 대가대비의 발로에서 부분별한 4대강 사업의 중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종회 의장단은 정부에 △4대강 사업의 즉각 중단과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국가재정 집행의 자율과 환경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4대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행할 경우 전국의 수행자·불자로부터 냉정한 심판이 따를 것임을 경고했다.

이에 앞선 14일,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은)는 ‘4대강을 그대로 두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는 성명서에서 “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4대강 습지와 강바닥이 포크레인으로 동개지는 현실에 심한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4대강을 그대로 두라. 최소한의 개발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명 평화의 강을 만드는 것이 모두가 공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5월 21일 전국의 사암에서 봉행됐다. 조계사에서 이날 오전 10시 봉행된 법요식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 등 종단지도자와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김동건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정몽준·정세균·강기갑 등 정당 대표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오성 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주원 원불교 교정위원장 등 1만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지방선거에 불자 출마자 261명

조계종 중앙신도회 출마자 현황 발표... 서울시의회 불자회 구성 추진

6·2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불자후보는 26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 불교정책기획단은 5월 19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불자 출마자 현황을 조사·발표했다.

불교정책기획단 발표에 의하면 불자 공약단체장 출마자는 박준영 전남도지사 후보(민주당), 이계진·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한나라당·민주당),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민주당), 노옥희 울산시장 후보(진보신

당), 박해춘 충청남도지사 후보(한나라당) 등 7명이었다.

기초단체장은 서울 용산구청장 지용훈 후보를 비롯한 70명, 광역의원은 서울시 부두원 후보 외 72명, 기초의원인 경기도 화성시 송재석 후보 외 105명, 교육감 후보는 김복만 울산광역시 후보, 교육위원 후보는 서울시 이부영 후보 외 6명이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 비례대표는 제외됐다.

인물정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

록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원 불교인재뱅크와 언론사 인물정보 검색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는 2010년 2월부터 예비후보를 조사한 뒤 그 중 후보로 확정된 출마자를 추려 발표했다.

중앙신도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 자료는 불자사회네트워크 구축과 서울시의회 불자회 구성 등 신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확인과정을 거쳐 불교인재뱅크에 기록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신계사 등 北 사찰에 양초 지원

민추본, 조불련 중앙위원회에 17일 전달

정부의 대북 지원 차단 조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 이하 민추본)가 조선불교도량맹 중앙위원회에 2600여 만원 상당의 양초와 향을 지원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5월 17일 동해선 육로를 통해 조선불교도량맹 중앙위원회에 양초 200box(100개/1box), 향 20box(100갑/1box)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과 민추본

의 예산으로 지원된 향과 초는 금강산 신계사를 비롯한 조불련 사찰에 전달된다.

또 민추본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남북 공동발원문을 채택해 동시 법회를 개최했다.

한편, 남북불교교류 사업을 추진해 온 민추본은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한민족 역사 문화 통일 순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연 기자

간화선 철학적 조명

東大 불교문화연구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은 5월 29일 오전 9시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간화선, 철학을 만나다’를 주제로 봉축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동국대 현각 스님이 ‘간화선의 전통과 그 현대적 수용’을 주제로 기조발제한다.

주제발표에는 이정우 철학아카데미 원장이 ‘시간과 실제-정승 고형곤의 존재론’ 등을 발표한다.

조동섭 기자

“우리 모두 부처로 태어납시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남북불교도 평화통일 공동발원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이 5월 21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와 전국의 2만여 사암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각 사찰의 법요식마다 남북과 북한 교사의 법요식마다 남북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이 함께 작성한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이 낭독돼 민족의 평화통일을 염원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주관한 조계사 법요식에는 종정 법전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관계 인사, 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권오성 목사와 김주원 원불교 교정위원장 등 이웃종교인, 한스올리히 자이트 독일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을 포함한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법요식은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치는 명교·명종의식으로 시작돼 도량계기식, 육법공양의식으로 시작했다. 이어 관불 및 마정수기,

현화, 현축, 현등, 현다,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의 축원과 제7회 불자대상 시상, 총무원장스님의 봉축사, 대통령 축하메시지, 종정예하의 법어,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과 봉축 발원문 낭독의 순으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날 하한주호 준위·앨런트 한혜숙·조용석 전 대법원회장에 불자대상을 수여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봉축사에서 “다름의 천태만상 속에서 같음의 공유연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부대중은 스스로를 등불 삼고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 삼아 어둠(무)한 정진과 자비로운 보살행을 통해 사바세계를 정토로 만들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인촌 장관이 대독한 봉축메시지를 통해 “불교의

지혜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녹색 대한민국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고 말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봉축법어를 통해 “오늘은 부처님이 미완의 여로로 태어나 해탈의 길을 열고 우리 곁에 오신 날”이라고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밝히고 “염매에서 벗어나 무위진인을 이룩해 모든 중생이 부처로 태어납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이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을 낭독했다. 보선 스님이 “통일된 부강한 지상정토가 될 때까지 남북의 사부대중은 불국정토를 향하여 발걸음을 맞추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에는 험난하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물러섬 없이 우리 손으로 상호존

중과 평화체제의 정착, 신뢰의 통일 민족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는 내용의 발원문을 낭독하는 동안 참석자들은 합창으로써 발원에 동참했다.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은 봉축 발원문을 통해 “자신을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아 내안의 어둠과 어지러움을 진정으로 밝히는 지혜의 힘을 얻어 소외된 이웃, 억압 받는 민중들, 가난·질병으로 신음하는 세계 가족들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정진해 나가겠다”고 발원했다.

이날 조계사 법요식은 KBS1, MBC, 불교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 됐다. 태고종과 천태종 전각종 등 종단들도 불원사, 구인사, 탑주심인당 등 전국의 사암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했으며, 제등행진 등 다양한 봉축행사를 진행했다.

글=조동섭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12 선지식·동광 스님 ▶11 강의·향봉 스님 ▶7 현장-5·18광주민주항쟁 30주년

785·786호
24면 발행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운주사

- 불교서적·음반 도매
- 불교서적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운주사 www.unjus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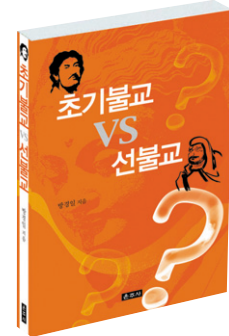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한국불교의 미래는 선불교인가 초기불교인가?

초기불교 VS 선불교

불교 전반에 대한 탄탄한 지식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흥미진진하게 써내려간 한 편의 소설같은 책 현대 한국 불교를 관통하는 두 개의 흐름, 전통적인 선불교와 새롭게 유행하는 남방불교의 한판 대결! 한국사회에서 선불교는 한계에 봉착한 것인가? 남방불교의 득세는 일시적 유행인가, 아니면 한국불교의 미래인가? 보다 본질적으로, 한국 초기불교주의자들의 주장은 교리적으로 올바른가?

방경일 저 | 신국판 변형 | 296쪽 | 값 13,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티벳 사자의 서』에 의한 증음에서의 해탈법

다음 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 49일 동안 망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어떻게 천도해야 망자를 해탈 또는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할 수 있는가?

이 책은 증음의 기간 중 단계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천도를 하는 이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망자를 어떻게 경계해야 하는지 등을 담고 있다.

석법성 편역 | 신국판 변형 | 144쪽 | 값 8,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